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로 살아가기 - 현상학적 연구*

정 주 은[†]

천 성 문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주로 하고 인터넷메일, 전화면담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메모를 참고하였고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관찰일지도 참고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됨>, <소름 짝 끼치는 절망적인 사건>,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이야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함>, <가족관계의 변화>, <피해 생존자매에게 드는 양가적 감정>, <자기 존재의 이중성>, <위기 대응방식과 생존 전략>, <생존전략조차 선택하기 어려움>, <성장 전략>이라는 10개의 구성요소 아래 27개의 하위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첫째, 성폭력 사건은 자매에게 심리적 충격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 신체적 증상,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지만 피해 자매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긍정적 경험을 가져 자기성장을 하려 노력한다. 둘째, 피해 생존 자매에게 양가적 감정을 느끼며 자매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타자이면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체이기도 한 자기 존재의 이중성으로 혼란스러워하지만 자신을 피해자로 스스로 인정하며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셋째,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주변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자기치유와 성장을 하고 싶어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과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폭력, 피해생존자, 피해경험, 존재의 이중성,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정주은(2011)의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로 살아가기-현상학적 연구’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정주은,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Tel : 051-663-5344, E-mail : flowerisla70@naver.com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성폭력 실태와 의식개선·치유 프로그램, 피해자, 가해자 세 부분에서 연구되어 왔다. 성폭력 실태와 의식개선에 대한 연구로 성차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연구, 성의식개선을 위한 성교육 개발, 친족 성폭력 연구,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고재홍, 2006; 김나연, 2002; 김복태, 2001; 배경희, 2007; 임영선, 2009; 이승희, 2010; 김희진, 2010; 고정애, 2011; 이윤경, 2012 이민선, 2012 등)에 관한 연구가 있고 피해자 연구로 피해자의 심리, 치유 경험,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강민아, 2008; 권혜수, 2007, 2008; 박가람, 정남운, 2008; 원경희, 2008; 김신영, 2010; 신기숙, 2010; 김종현, 2011; 이미경, 2012 등)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 연구로 가해자의 심리, 교정 경험, 교정프로그램 개발(서혜석, 2006; 2007; 신식, 이수경, 2006; 이은진, 2009; 하혜숙, 김동일, 2007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특히 성장기 폭력 경험이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범죄 처벌에 대한 연구, 특히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연구 등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김유림, 2010; 김은지, 2011; 이우송, 2011; 김종현, 2011; 최재희, 2012; 최종하, 2012 등)들이 범위를 넓혀 연구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로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 연구(권혜수, 김소라, 2006; 김보경, 2012)와 성폭력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 가족에 관한 연구(정명희, 2004; 강민아, 임경희, 2006; 박태영, 박소영, 2007; 서재선, 2012)가 있는데 이는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피해자, 가해자 중심에서 가족, 상담자, 사회 구조 등, 그 범위가 확장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확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 뿐 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가족이란 가족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방적 체계이다. 따라서 한 구성원의 모든 긍정적, 부정적 변화는 다른 구성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체로서 기능한다(남미옥, 2001). 가족체계이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한 체계의 일부에 변화가 있을 경우 나머지 부분들도 변화가 발생하며(Broderick, 1993; Harper-Dorton & Herbert, 1999; Papero, 1990) 같은 맥락으로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개인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다른 가족 성원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아직 성폭력 사건에 있어 어머니 연구(강민아, 임경희, 2006, 김경희, 2008; 양선화, 2008) 외에 다른 가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가족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¹⁾의 가족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형제, 자매에게 초점을 두게 된 것은 형

1)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란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또는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원경희, 2008)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자매를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로 지칭한다. 이는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자 법적인 언어인 피해자와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았으며, 그 살아있음을 축복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생존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로 쓰고자 한다.

제, 자매 관계(이하 형제 관계)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형제 관계는 생물학적 유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며(Scarr & Grajek, 1982) 형제들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Walters, 1982) 공통된 문화적 환경으로 친밀한 경험의 역사를 갖는다. 또한 형제 관계는 아동 간 상호작용의 특징인 호혜성을 띠면서도 연령 차이 때문에 아동-성인간의 특징인 상보성도 함께 가질 수 있다(Dunn, 1983).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여러 경험의 결과는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행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청소년일 경우 그 형제, 자매들도 비슷한 발달 시기여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이 개인의 성적 발달에 왜곡된 지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자존감이나 신체 지각과 대인 지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주용, 김정규, 2006). 황승흠, 황성기(2001)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피해의 ‘반영구성’과 피해자가 학습과정을 통해 향후 가해자로 전환되는 피해의 ‘확산성’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므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형제, 자매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시사해준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생존자는 명백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치유와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그와는 달리 형제, 자매들은 어머

한 보호나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이 시기를 겪게 된다. 이은실(2007)의 ‘소아암 환아 형제 자매의 외로움 연구’에 따르면 환아의 암진단은 가족에게 상황적 위기를 초래하여 부모는 양육시간과 에너지를 환아 중심으로 쏟게 되며, 아직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건강한 형제, 자매가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은 환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일 수 있는데 많은 부모들은 환아의 질병 치료에만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형제, 자매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나 걱정거리, 알고 싶어 하는 욕구 등은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손지현, 199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부모들은 발생한 사건에 충격을 받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다보면 피해아동의 형제, 자매들은 방치되기 쉽고 가족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욕구불만이 쌓이게 된다. 특히 연년생이거나 형제, 자매들이 어릴 경우 부모의 관심이 피해아동에게 집중됨으로 인한 소외감과 애정결핍의 시간들은 성폭력의 또 다른 피해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가족 구성원 중 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었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성폭력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자매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을 자매로 정한 것은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형제, 자매로 분산시키기보다 자매로 초점을 두어 경험의 본질을 더 잘 추출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자 할 때 본 연구는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경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

상학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 생존자의 자매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성폭력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들이 겪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매들의 치유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피해 범주를 명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문제.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들의 경험 구조와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방 법

현상학적 연구 방법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배경과 특성

현상학은 현대철학의 한 형태로 질적 연구 방법론의 사상적 기초다. 현상학은 근대 실증주의 혹은 과학주의에 의해 의식을 떠나 있는 ‘사실’로 잘못 읽혀진 현실을 의식과 교통하고 있는 현실로 새롭게 주체화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으로 Van Manen(1990)은 사물의 자연적 특성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현상학은 생생한 현실과 맞대고 부대끼며 살고 있는 현실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방식을 그것이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과 그들의 그것을 ‘어떻게’ 경험 했는가로 구성된다. 현상학적 접근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일상 경험의 사실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유혜령, 1999)으로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탐구의 맥락을 통제하고 변수를 사용하여 환원시키는 것과 달리 현상이 나타나는 대로 가능한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상학의 중요한 관점은 인간과 그 존재는 ‘전체의 생명체’ 그 자체로서 고려되어야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생활 세계 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의미를 두며, 참여자의 삶이라는 맥락 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참여자의 삶이라는 맥락 안에서 체험된 현상의 예들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추구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가설 입증이나 이론 검증이라기보다는 발견 지향적이다(Giorgi, 1985).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괄호치기(bracketing)’와 ‘개방성(openness)’의 태도가 중요하다. 모든 개념적 추상에 의한 조작을 끊고 사태의 본질을 통찰하는 의식의 태도 변경을 ‘현상학적 환원’ 혹은 ‘판단중지(Epoche)’라 하는데 ‘판단중지(Epoche)’란 자연적 태도로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이해 내용을 ‘괄호 속에 넣어’ 일단 보류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 고찰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철학적 토대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특히 상담에서 개인의 깊이 있는 경험의 본질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의미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매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낸 것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되기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에서 분석 또는 해석의 과정이 정해진 절차나 원리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방법론’으로써 철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Colaizzi, Van Manen, Giorgi 등의 학자가 제시한 각기 조금씩 차이가 나는 연구 절차를 취해 그 학자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규칙 지배적인 절차가 아니라 통찰에 의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되어진다.

Giorgi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따라야 하는 4가지 필수적인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의 인식’단계다.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 전체 기술 내용을 읽는다. 연구자는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일단 전체에 대한 인식이 파악되면, 연구자는 처음으로 되돌아가 심리학적 관점으로부터 ‘의미 단위’를 구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어 다시 한번 그 텍스트를 철저하게 읽는다. 따라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단위를 나누기 시작한다. 연구자가 발췌한 의미 단위에 대한 인위성 문제는 차후 다른 전문가를 통해 검증받음으로써 해결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상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것이다. 일단 ‘의미 단위’의 윤곽이 파악되면 연구자는 모든 의미 단위를 검토하고 그것 속에 포함된 심리학적 통찰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즉 앞의 단계에서 수립된 의미 단위를 반성(reflection)과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일반적인 범주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때 합의된 학문적인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Giorgi의 제안대로 현상학적 관점에서 상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모든 변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의 구조’라고 불리는 것으로 현상학에서는 대상자 행동의 이유가 아닌 ‘의미’ 즉 ‘대상자 행동의 구조’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구조는 ‘여러 개의 의미가 모여진 것으로 그 안에 여러 구성 요소를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다(Giorgi, 2004, 1985).

본 연구자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가 갖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학문적 용어의 형태로 전화하여 제시하고 도출된 구조 속에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관된 기술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며 아동기 성폭력으로 인한 외

상을 경험한 개인들의 심리학적 영역에 학문적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본 연구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 관계망을 추적하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인데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나 흔하지 않는 사례를 선정할 때 사용한다. 본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고 연구 참여자를 찾는 과정 또한 어려워 연구자의 사회관계를 활용하거나 연구자가 운영하는 집단상담 그룹에서 연구 참여자를 찾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중 자매로 성폭력 사건은 아동,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였고 당시든 지나서든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고 성장한 현재 만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를 성인으로 한 것은 성장기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자라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보다 종적인 경험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질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적절성'과 '충분성'이다. 적절한성은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의 주제와 연구 목적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해야한다는 것이다 (Morse & Field, 1977). 이러한 원리에 따르기

위해 연구자가 세운 참여자 범위에 부합한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참여자들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자료의 충분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는데 진행된 면담횟수는 최소 2회에서 3회까지였다.

모집 과정

본 연구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해 오며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책위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해 당시 알았던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들을 직접 만나 논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소개를 부탁하거나 현재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개를 받았다. 또 연구자가 운영하는 독서치료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의 안내를 통해 참여자를 발굴하거나 연구자가 참여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 집단 상담' 집단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모집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례1>

현재 23세 비혼²⁾ 여성으로 전문대를 나왔

2) '비혼(非婚)'은 '미혼'이라는 낱말이 결혼하지 않은 모든 여성을 '언젠가는 결혼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문제화하고 제도로서의 결혼을 상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여성주의 명명이다. 98년 서울여성의 전화 [싱글여성모임]에서 이 명명이 시

고 회사원이며 종교는 기독교이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집을 나가고 연구 참여자와 언니는 아버지와 시골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친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하였고 시간이 흘러 엄마 집에 놀러 가서 엄마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성폭행 사건을 알렸다. 그때 짐작만 하고 있던 참여자는 자는 척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몇 달 뒤 엄마는 자매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 당시 엄마는 동거 상태였고 새아버지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성장하면서 가족의 비밀이 된 그 사건은 종종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용어로 지칭되며 오르내리긴 했으나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사례2>

현재 나이 26세로 비혼 여성이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종교는 불교이다. 참여자의 언니가 피해 생존자로 중학교 때 동네 노총각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우연히 두 사람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연구 참여자는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 언니는 그 뒤에도 이웃집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니는 정신지체 3급으로 사고력은 떨어지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엄마는 언니의 성폭력 사건으로 이웃들과 갈등을 빚자 우울증에 걸렸고 2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다. 참여자의 부모는 모두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아버지는 시골집에서 지내고 연구 참여자는 독립해 나와 생활하고 언

작되었으며 이후 심경미(2003), 성미라(2006) 등 여성주의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비혼’이라는 명명을 사용하여 싱글여성을 연구해왔다.

니는 컴퓨터에 있다.

<사례3>

현재 31세로 학력은 대학 중퇴이고 전업주부이며 취학 전 아들이 있고 종교는 없다. 친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고 언니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다. 9살부터 19살 까지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언니가 성인이 되어 회사생활을 하며 회식 등으로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의 화로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버지와 언니의 갈등이 깊어지자 언니는 견디다 못해 동생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렸고 그때가 25살 때였다. 그 뒤 동생은 언니와 함께 집을 나와 함께 살았으나 언니의 방황이 버거워 3개월 뒤 동생은 남자친구가 구해 준 집에서 살게 되었다. 당시 1년 동안 무기력에 빠져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가족을 깨고 싶지 않다는 언니의 요청으로 가끔 부모를 만나는데 이혼하고 있지 않은 엄마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언니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갈등을 겪고 있다.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연구자는 예비 인터뷰를 하였다. 본 연구가 회고 연구이다 보니 기억이 재구성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성장기인 청소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시절 언니의 성폭력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중학교 2학년(15세) 여학생을 예비 인터뷰하게 되었다. 예비인터뷰 당시 참여자는 죄책감을 호소하였고 당사자인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본인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 눈치를 보게 되는 사정을 얘기하였다. 예비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

자인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본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할 질문들을 수정하고 질문의 순서도 조정하며 새로운 질문도 추가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0년 10월 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으로 1회 면담 시간은 60분에서 150분 사이였다. 추가 질문은 이메일이나 전화 면담으로 대체하였다. 면담횟수는 최소 2회에서 3회까지였고 이메일은 최소 1회에서 3회, 전화면담도 1회에서 2회 진행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질문지에 치중하기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인터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메모와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연구 일지도 참고하였다. 1회 면담이 끝나면 축어록을 만들어 연구 자문팀에게 보내 자문을 받고 2차 인터뷰를 준비했다. 1차 분석이 끝나면 연구 자문팀에게 보내 자문을 받고 질적 연구 논문 지도 경험이 계신 지도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자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가 갖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학문적 용어의 형태로 전화하여 제시하고 도출된 구조 속에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관된 기술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며 아동기 성폭력으로 인한 외

상을 경험한 개인들의 심리학적 영역에 학문적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료 분석은 면담 후에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문서화된 자료를 만들어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서화된 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적 맥락, 공간과 분위기, 표정, 침묵 등 비언어적인 자료들은 관찰 메모 수첩에 기재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주제의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 선행 연구들과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였다.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의 기본 철학에 따라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로서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였다. 즉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연구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편견들을 메모해 두었다.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연구 자문팀을 구성하였는데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상담가 2인, 미술 치료를 공부하고 있고 사회학자인 사회학 교수 1인, 상담심리전문 상담가 1인 이렇게 4인으로 구성하여 연구 기간 내내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분석에 관한 협의와 조언을 받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논의를 거쳐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 과

구성요소의 도출

먼저 작성된 축어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전체 진술에 대해 파악하였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단위들을 나누었다. 나뉜 의미

표 1. 구성요소 도출 과정

심리학적 용어로 전환된 의미단위 요약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눈치껏 알게 된 거죠.	우연하게 알게 됨.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됨.
우연히 어른들 얘기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됨.		
언니의 요청으로 타인이 알려줌.	자매의 요청으로 알게 됨.	소름 짝 끼치는 절망적인 사건.
사건을 알고 소름이 짝 끼침	소름 짝 끼치는 절망적인 사건	
절망적인 사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사건을 알게 됨에 따른 충격	
모든 게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이야기
어릴적 상처	가족의 비밀이 된 어릴적 상처	
가족의 비밀-서로서로 알면서도 감춘다.		
입밖으로 꺼내기 싫은 이야기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최고의 상처	의상후 스트레스 경험함
최고의 상처		
무덤덤... 일부러 더 무덤덤하게.	정서적 둔감	
뭔가 상처를 받아 딱딱해진 것 같아요.		
죽이고 싶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	
비인간적으로 보여요		
말하기 모호한 상태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억압	
화가 나지만 그냥 삭힘		
인정하지 않았다-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	
잠을 잘 못잠		
번비, 호흡곤란, 소화불량, 피로감.		
엄마랑 같이 살게 됨		
언니랑 집을 나가 살게 됨	사건으로 사는 곳을 옮김	가족 관계의 변화
엄마가 언니한테 더 신경썼어요.	가족 관계의 변화	
엄마에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저를 좋아했어요.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자매에게 드는 연민	
왜 하필 언니일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언니에 대한 미안함-모른척하고 지내는 것들		
내가 아니라 언니라 드는 죄책감	나를 휘감는 죄책감	피해 생존 자매에게 드는 양가적 감정
사건 후 언니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됨		
어떻게 내가 모를 수가 있었을까	자매의 고통을 부인	
충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상처		
성폭행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임.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저한테 그랬으면 난리났을걸요		
저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지속되지 않았다.		
성폭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답답하죠.		
성폭행 완전 듣는 것도 진짜 짜증나요	자매에게 드는 답답함	
모든 원인을 성폭력 사건으로 돌리는 건 답답해		
피해자라는 생각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건데.		
눈치를 보게 됨		
언니를 챙기기엔 무리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인데	타자로서의 무력감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다		
나의 모든 노력이 이 사람한테 소용이 없다.		자기 존재의 이중성
나의 힘들음을 말하기 어렵다.		
내가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잠재적 피해자로서 존재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	나도 피해자	
신뢰는 깨졌고 배신당한 기분.		
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자기 암시	
괜찮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다.		
모든 게 경험이고 배움이다.	긍정적 사고	
영향 받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거다.		
성폭력 사건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위기 대응방식과 생존전략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피해자에게 주는 부당성	존재의 정당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감출 일이 아니다.		
짜증나요 눈치 보는 거.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가족(피해자)과 관계 재구성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언니가 계속 아파하니깐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피해자매의 지속되는 피해 증세로 오는 무력감	생존 전략조차 선택하기 어려움
나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감정의 자각	
난 아무 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그게 억울하다.		
멘토가 있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드러내기	성장 전략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사회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도움을 받고 싶다	

단위들을 심리학적 용어로 전환하였는데 심리학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Giorgi(2004, 1985)가 제안한대로 상식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 후 학문적 용어로 변환된 의미단위들을 동일한 의미끼리 묶어서 의미단위요약을 도출하였고 의미단위요약을 묶어 상위

의 개념인 27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구성들을 묶어 최종적으로 10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을 표 1에서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둔 자매 경험의 구성 요소들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됨

자매들은 자신의 자매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주로 눈치껏, 분위기상,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된다. 어린 시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어렵다.

초등학교 땀가? 저 기억이 잘 안나요. 제가 어렸을 땀데... 언니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동네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하니까. 같이 있을 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죠.(사례2)

소름 짝 끼치는 절망적인 사건

<사례 1>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초등학교 3학년, 열 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짝 끼쳤다고 하니 사건에 대한 반응 강도는 몹시 강한 것이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아저씨가 내한테 성폭행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랬는데 진짜다 나중엔 ‘뽕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런 헛소리 하나면서 말했는데 근데 아빠다 이러는거예요. 뭔가 그때 소름이 짝 끼치는 거예요.(사례1)

<사례 3>의 경우 피해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됐을 때 자매는 절망을 느낀다. ‘절망(絶望)’이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린 상태이다.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의 정신 상태를 ‘절망’이라고 했다. <사례 3>의 경우 오랫동안 절망감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한다.

사실은 제가 더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냥 그때 의사선생님이 언니가 9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사례3)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이야기

Serge Tisseron(2003)은 ‘가족의 비밀’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선 스스로에게 감추고 싶은 자기 삶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감추려는 전략과 매우 흡사하다. <사례 1>의 경우 연구 참여자는 피해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자신은 모르는 것처럼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아무리 열 받아도 절대 그 말은 입 밖으로 안꺼내야지 그런 거죠. 아무리 열받아도. 진짜 언니가 죽도록 싫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아... 가족인데도. 저게 친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절대 입으로 안꺼내죠.(사례1)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함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고 자매들은 정서적 둔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 억압, 몸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 등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자매의 성폭력 사건은 가족의 비밀이 되고 이 비밀은 정신적 왜곡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뚜렷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대인관계에서 수많은 비밀을 만들어낸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비밀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중성을 띠게 되는 경우엔 비록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가족 모두가 비밀의 그림자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가족 내 이상스럽고 이해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족들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적 둔감도 그 중 하나이다. <사례 1>에서 연구 참여자는 사건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아닌 척, 그 뒤 성장기에도 사건을 은유화시켜 얘기하면서 놀라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무덤덤한 척하려 노력하는데 그것이 피해 자매를 배려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냥 들어도 깜짝 놀라지만, 깜짝 놀라는 거 같지 않은 그런 반응을 저 스스로 느끼고 싶고 그런 거죠. 크게 안놀랐어요. 그냥 뭐, 무덤덤... 왜냐면 제가 깜짝 깜짝 놀라면 상대방이 더 그럴까봐. 일부러 더 무덤덤하게. 저는 **직접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아서 딱딱해진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요.**(사례 1)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죽이고 싶거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노를 경험한다.

아빠가 참 좋았었는데 불쌍했었는데 어

렸을 때. 근데 싫고. 증오감 들고. 한때 정말 미웠던 적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었고. (사례1)

나쁜 감정이 들죠. 화가 나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고 인간으로 안보이죠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때려 죽이고 싶죠. (사례 2)

냉정하게 말해서 전 저희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심이예요. 그 사실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구요. (사례3)

<사례1>과 <사례3>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이기에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하다.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친아빠가 그랬으니까. 나는 또 같은 자식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친언니고 가해한 사람은 친아빠고 진짜 말하기 모호한 상태거든요.(사례 1)

진심으로 제 인생 최악의 인연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화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원래 다른 집도 다 이렇다. 자기는 맨 처음에는 중학생 때까지는 다 이런 줄 알았대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싶고. 어찌다 한 번 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차라리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지속적이었잖아요. 9살부터 19살 까지.(사례3)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감정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고 감정 자체를 억압해 왔음을 보고한다. <사례1>에서는 오랜 기간 감정을 억압하거나 왜곡하여 현재 자신의 감정이 딱딱해지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사례2>의 경우 화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혼자 삭히며 감정을 무디게 해 왔다. <사례3>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부정하고 외면해 왔음을 보고한다.

저는 언니처럼 그런 따뜻한 감정 같은 걸 잃었죠 저는. 순수한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가지려고도 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사례1)

언니에 대해서 막 하는 사람한테도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냥 삭혀야죠. 뭐 어디 가서 얘길해요?(사례2)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왜냐면 그렇게 거절해 놓고 정작 그 뒤로도 한참동안 그만 살고 싶다고 여길 만큼 배외했으니까. 사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었고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사례 3)

스트레스는 신체 증상으로도 드러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불면증을 호소한다. 변비, 소화불량, 피로감 등 스트레스 증세는 신체 증상으로 외현화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언니한테 들었는데 변을 보는 것은 엄마가 가르쳐야 된대요. 그때 당시 저는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 보는 거를 누군가에게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숨이 잘 안쉬어져요. 호흡곤란 증세도 있고. 항상 불안하고.... 열이 좀 많고.(사례1)

잠을 못자요. 항상 3시 이래요. 잘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온갖 잡생각을 막 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런 것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요. 항상 잠이 모자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정신병원 있잖아요 정신과 거기 가서 한 번. 치료해 볼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 있어요. 여러 면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사례2)

가족 관계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관계의 변화도 겪게 되는데 <사례 1>은 사건 발생 전까지는 그래도 아빠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사건 발생 후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 <사례 2>의 경우 피해 자매가 정신지체 3급이기도 했지만 사건 이후 엄마는 거의 언니와 붙어있다시피 했다. 그렇게 엄마 옆엔 항상 언니가 있으니 연구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돌게 되고 자신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관심 받으며 크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사례 3>의 경우 피해 자매가 가족 관계가 유지, 회복되기를 바래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명절에는 가족들끼리 모이기도 한다. 더구나 지금은 자신의 상황으로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한다.

언니가 내가 왜 여태까지 가만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가족관계가 깨지는 걸 전혀 원치 않는다고... 언니랑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는 표면적으로는 되게 어... 가끔 만나고 그러면 일반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편이었어요. 복잡해요. 복잡해. 그냥 다 지난 일이라고 어떻게든 덮고 싶어 하는 일 이니까 여기서 나 혼자 화를 내 본다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올 겨울에 들어 가야 하는 집이 있어요. 집이 아파트라서 공사 중이라 저는 현재 친정 부모님이 지방에서 자주 일을 하시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마랑 잘 지내다 보니까 아빠랑도 일부러 트러블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얼렁 설렁 넘어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기분은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살아도 되냐구요?(사례 3)

피해 생존 자매에게 드는 양가적인 감정

연구 참여자들은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고 자매가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또한 자매가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 <사례 3>의 경우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무관심하거나 귀찮아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연민은 미안한 마음을 낳기도 한다.

언니한테 제 마음이 좀 괜찮을 때는 잘해 주지만 제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들이 미안한 점이죠.(사례3)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 자매에게 죄책감이 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사례1>의 경우 연년생인 동생이 언니가 나이가 두 살 많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을 겪었다는 생각과 언니가 피해를 입는데 일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죄책감을 호소한다. 이 죄책감은 눈치 보기를 만들어내고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가로막는다.

내가 아니라 언니라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가 넘어져야 될 일인데 누가 대신 넘어져서 무릎이 까인 그래서 내가 대신 밴드를 붙여주고 약을 발라주는 데도 진짜 죄책감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두 살 차이라 그런 것 같아요.(사례1)

이런 미안함과 죄책감과와는 반대로 <사례 1>의 경우 연구 참여자는 피해 자매가 친부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기는 했으나 신체가 손상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증세를 보인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상처라고 생각하며 피해 자매의 고통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피해 자매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거나 성폭력에 관련된 어떤 것을 할 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피해 자매가 가진 고통의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 자매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

언니가 성폭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제가 오히려 더 짜증을 내요. ‘니가 왜 그러는데? 딴 거 틀어라 아, 그냥 그 기사를 읽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지 기억을 떠올릴까봐. 저는 그냥 과민반응하게 되는 거죠. (사례1)

<사례 3>의 경우는 피해 자매가 모든 것의 원인을 자신의 성폭력 피해로 돌리고 자신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

예를 들어 뭐 남자 친구와 사귀는 문제가 잘 안된다거나 이 모든 일을 다 거기서 책임을 좀 찾을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이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 일을 모두 다 그런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럴 때는 답답해요.(사례3)

존재의 이중성

연구 참여자들은 존재의 이중성을 경험한다. 사건 당사자가 아님으로 인한 타자로서의 존재와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피해자로서의 존재, 이는 자신의 존재를 이중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자신이 겪고 있는 피해를 호소하기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피해 자매가 존재한다. 또한 자신들은 가족으로서, 자매로서 피해 자매를 도와야하는 타자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이 자신의 힘들음을 얘기할 수 없게 된다.

여러 가지 상담 센터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저 자신도 굉장히 힘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인 언니가 굉장히 힘들 거다. 동생이 잘 해 줘라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거기서 제가 힘들기 때문에 절 좀 도와 달라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담 받기가 어려웠어요.(사례3)

위기 대응방식과 생존전략

성폭력 사건과 그것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사례 1>의 경우는 이 또한 경험이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본인은 물론 피해 자매에게도 이야기한다. <사례 3>의 경우도 ‘사건에 얽매어 휘둘리는 것은 지는 거다’란 생각으로 ‘영향 받지 않고 깨끗하게 살거다’란 오기의 힘으로 성폭력 사건을 겪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피해 자매를 지각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억울하게 고개를 숙여야 하고, 숨어 다녀야 하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있을 순 없다는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성폭행 당했는데 어찌라고. 죽을 거가? 뭐 아니면 상처 입은 그대로 이 기분 그대로 살거가? 이런 거죠. 성폭행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사례1)

그 가해자 분 아들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동네 사람들 얘기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동생이 그걸 알고 돈을 빼먹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사례 2)

그런 걸 다 떠나서 보호받아야 될 언니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이 받은 피해를 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편이에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구성애

선생님들도 어린 시절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얘기하고 다니지 않냐고. 더러워 보인다거나 이상해 보인다거나 그래 보이지 않지 않냐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감출 일이 아니라고.(사례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 자매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다가 어느 순간 피해 자매는 물론 다른 가족들과 관계를 재구성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좀 살고 그리고 다시 관계 맺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매와 뒤엉켜 내 문제, 네 문제 구분이 안되었다면 이제 자신을 버겁게 했던 책임감, 죄책감에서 조금 거리를 두며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이 설정해야 함을 느끼는 것이다.

생존 전략조차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

위기대응방식이나 생존전략을 나름대로 갖는다 하더라도 피해 자매의 지속되는 피해 후유증으로 계속되는 호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도 계속 모자란 것 같고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언니가 계속 아파하니깐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못 도와주고 지금도 못 도와주는 것 같아요.(사례3)

성장 전략

연구 참여자들은 사건을 알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자각한다. 그동안 ‘피해자매가 어떨까?’에 매달렸다면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사례 1>의 경우

는 자신의 문제를 꼭꼭 누르고 무조건 외면하려던 데서 이제는 서서히 판도라의 상자처럼 꺼내어 보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례 3>의 경우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왜 그런 일 때때 이래야 되는데?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는 자신을 자각한다.

예전에는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부분을 나이가 들어서 그걸 끄집어내서는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게 결혼을 해야 되면 나의 상처를 다 치료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사례1)

계속 생각한다고 뭐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일 때때, 그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하나? 난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전 그런 게 억울해요.(사례3)

<사례 1>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멘토가 있었으면 혼자 방황하는 시간과 죄책감을 덜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사례 3>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자신의 아픔과 힘듦을 그대로 말하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을 한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도 똑같이 그냥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사례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성폭력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건이며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sbs에서 하는 sos에) 저희 집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희 언니를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고 좀 잡아 줬으면 좋겠고 언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거기 보면 상담 하는 분 나오잖아요. 그런 것 보면 나도 저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예요.(사례2)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경험의 본질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기초로 10개의 구성 요소와 27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일반적인 진술로 통합하여 현상학적 글쓰기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거나 ‘**자매의 요청**’으로 알게 된다. 사건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소름이 짝 끼치며**’ 사건에 대해 ‘**절망적인**’ 심경이 된다. 자매의 성폭력 사건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고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며 연구 참여자들은 ‘**사건을 알게 된 충격**’을 경험한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매의 성폭력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이야기**’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실은 ‘**최고의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한

다. 사실을 알면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가족 또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매의 성폭력 사건은 ‘**가족의 비밀**’이 되거나 언급되더라도 ‘**어릴 적 상처**’로 은유되어 모호하게 소통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후 성장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정신이 이상해져간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에 ‘**감정 자체를 없애려 하거나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 딱딱해졌다**’고 느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서적으로 둔감해진다**’. 그러나 가해자를 생각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를 죽이고 싶거나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경험한다. 근친의 경우 어린 딸에게 가해자 아버지는 ‘**다른 집도 다 이룬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가정은 깨진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는 이런 아버지가 ‘**비인간적**’으로 보이며 무서움도 느낀다. 더구나 자신의 아버지가 자매의 성폭력 가해자이기도 하고 자신을 낳아 기른 사람이기도 하기에 ‘**말하기 모호한 상태**’라 여기며 ‘**차라리 남이라면 이렇게까지 화나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아프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이는 세상에 태어나 부모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주며 가장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던 근원적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중의 괴로움을 겪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감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자란다. 감정 자체를 없애려 하거나 화가 날 때도 삭히거나, 자매의 성폭력 사건으로 자신이 힘든데도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의 힘들과 아픔을 인정하면 성폭력 사건에서 영영 헤쳐 나오기 힘들 것이라

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놓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잠을 잘 못자고, 변을 못 보기도 하고 호흡 곤란, 소화 불량, 피로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사건으로 **가족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친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 설정이 변하기도 한다. 아버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이기도 하고 자신의 현재 삶을 파탄 낸 주범이기도 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과 용서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고 피해 자매와 함께 성장하면서 피해 자매가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며 ‘왜 하필 우리 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성장하면서 때론 자신의 힘겨움으로 모른 척 한 것에 대해 미안함도 가지며 기본적으로 **자매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회감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근처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아니라 언니라서, 그리고 언니가 그런 피해를 입는 동안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 정말 자신이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척 했을까?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번민과 고통, 자책을 한다. 그리고 사건 후 계속 피해 자매에게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연민과 죄책감, 이중 감정으로 인한 혼란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매의 고통을 부인**하게 한다. ‘충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상

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성폭력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은 자매의 무대응을 탓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은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 자매가 성폭력 사건을 상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 자매가 성폭력에 대해 반응하면 오히려 연구 참여자가 과민해 지기도 한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폭력 사건으로 귀인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다. 피해자라는 생각만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언제까지 성폭력 사건에 파묻혀 있을 것인지 **피해 자매에게 답답함**을 느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존재의 이중성을 경험하는데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 자매의 가족으로 주변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존재의 이중성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여 **타자로서의 무력감**을 갖게 한다. 주변인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예민해져 있는 피해 자매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 자매가 어떤지 살피게 되다보니 ‘눈치를 본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 ‘눈치봄’은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를 방해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다. 연구 참여자는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에서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힘듦보다 더 힘들거라 여겨지는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 자매가 있기에 자신의 힘듦을 말하기 어렵고 피해 자매를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자신도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힘듦으로 피해 자매를 챙기기엔 무리가 있고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으로 돕는데 한계를 느낀다. 그러다 보니 돕기 위해 요구한 것을 피해 자매가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다. 그리고 자신

도 여성으로 **잠재적 피해자**라는 자각은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사건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위기에 대처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은 괜찮고 강하게 커야 한다는 **자기암시**를 하며 성폭력 사건 또한 모든 게 경험이고 배움이며 곳곳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이며 성폭력 사건은 한 부분일 뿐 전인격적, 전존재적 사건은 아니라는 자각과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부당성에 대해서도 화를 내며 **존재의 정당성**을 자각해 간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로 뒤엎켜 내 문제, 네 문제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자신을 버겁게 했던 과도한 책임감, 죄책감에서 거리를 두며 가족과 피해 자매와 새로운 관계를 갖기 위한 **관계 재구성**을 한다. 이렇게 위기 대응 방식이나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가지려 노력하더라도, 피해 자매의 지속되는 피해 후유증 호소는 연구 참여자가 어떤 선택도 못하게 막기도 하며 **지속되는 피해 증세**로 오

는 **무력감**으로 생존 전략 조차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자각**한다. 그리고 ‘멘토가 있어 마음을 터놓고 자신도 아프고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게 나왔을 거라며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하여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경험의 구조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경험의 구조는 경험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시간적 맥락 속에서 추출된 경험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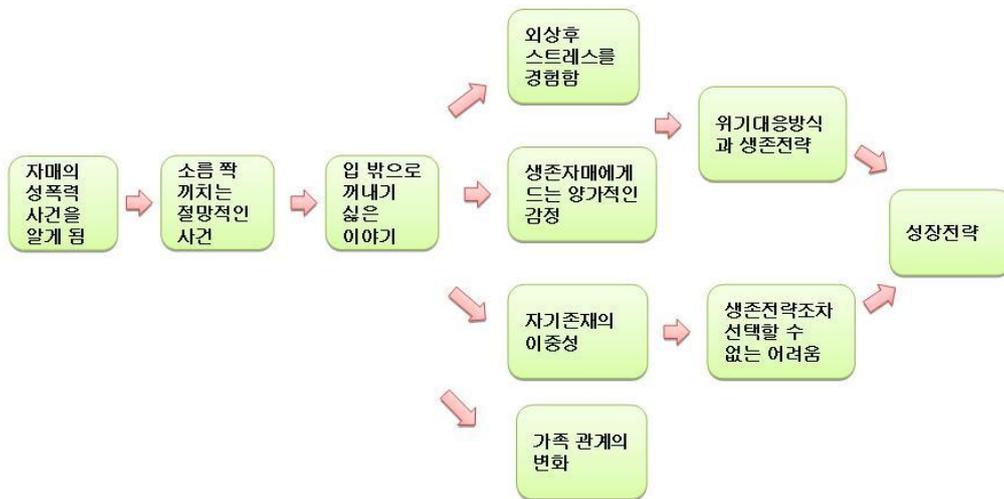


그림 1.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경험구조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들의 경험의 본질은 성폭력 사건의 타자이면서 주체이기도 한 존재의 이중성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다.

첫째, 피해 생존자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자매에겐 심리적 충격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 신체적 증상,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심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 어머니들이 화, 우울, 자기비난, 불신(Carol, 2006), 수면과 섭식의 문제, 긴장으로 인한 두통 또는 피로와 같은 신체적 반응과(Cheryl, 1990) 분노, 보복의 감정(Burge, 1983), 자녀가 받은 폭력적 사실로 인하여 느끼는 상당한 무력감(Beverly, 1995) 등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처럼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들도 유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은 좌절감과 무력감, 죄책감, 비난, 비밀유지에 따른 고통(나인형, 2006) 등을 후유증으로 보고하였는데 어머니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와 자매가 느끼는 이유는 달랐다.

성폭력 피해 자녀를 둔 어머니에 관한 선행 연구(강민아, 임경희, 2006; 김경희, 2008; 양선화; 2008)에서는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역할이 실패했다고 느끼며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며 피해 생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자매는 피해 자매의 호소를 자신의 상황에 따라 모른 척 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근친 성폭력의 경우 자신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죄책

감에 시달린다. 이는 보호자로서 비중이 큰 어머니와 가족 구성원으로 상호 작용하는 동등한 형제 관계인 자매가 갖는 역할과 관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는 피해 자매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는 성폭력 사건을 겪은 자매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며 성폭력 사건으로 상처 입은 존재로서 자매에 대한 연민을 가졌다. 이러한 마음은 무조건 잘해주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자매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자신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닌지, 성장하면서 ‘자매의 피해를 잊거나 외면하고 자신의 생활에 몰두한 건 아닌지’ 죄책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은 갈등을 일으키며 때론 피해 자매의 고통을 부인하거나 피해 자매가 성폭력에 대해 관심 갖는 것조차 거부하며 피해 자매를 억압하는 기제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아동기 성폭력 사건을 성인이 된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인 자매의 피해 호소를 부인했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는 피해 자매의 고통을 왜 부인할까? 지속적인 피해 자매의 호소는 자신들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며 그것으로 인한 부담이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 또한 계속되는 피해 자매의 호소는 성폭력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는 고통스런 현재 사건이 되어버린다. 또한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과 피해 자매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충돌하며 피해 자매의 고통을 부인하게 한다. 이러한 양가적 감정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가 겪는 갈등의 가장 핵심 요소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자신은 피해 자매와 달리 다른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피해자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방해한다. 이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를 치유하는 과정에 성폭력 피해와 바람직한 대처 전략 등에 관한 교육과 양가적인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는 자매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타자이면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체이기도 한 자기 존재의 이중성을 경험했다.

피해 주체로서 자매는 피해 자매의 성폭력 사건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 증상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자매가 있기에 성폭력 사건으로 겪는 자신의 힘들음을 말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충격적인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옆에서 겪으며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잠재적 피해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깨닫기도 하며 그로인해 사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갖기도 했다. 한 인영 등(2008)의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사회에서 인정하는 약자로 누구나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피해자다움’이라는 역할을 부여해 공감은 하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담은 채 행하는 폭력에 대한 관찰은 피해자를 오히려 타자화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타자화 된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

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불합리함의 반영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의 반영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있어 타자이면서 주체이기도 한 자매의 존재이중성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자매의 피해 규명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이러한 존재적 특성을 명확히 하여 피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자매가 처한 타자이면서 주체이기도 한 존재적 특성을 명료화 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인이 하고 있는 대처나 적응 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타자로서 느끼는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으로 겪는 자매의 피해를 피해자매가 겪는 피해와 경중 없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Campbell(2002)의 연구에서 다른 사람의 외상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성폭력 피해자를 일차적 피해자로, 가족, 친구, 법률가, 상담자, 연구자들을 이차적 피해자로 개념화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자매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기에 Campbell(2002)의 견해와는 달리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를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김경희(2008) 연구에서 근친 성학대 피해 자녀의 어머니를 배우자가 딸을 성학대하는 사건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인 동시에 그 삶을 헤쳐내고 살아가는 ‘생존자’로 규명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이에 가족도 피해자이고 피해자만

외상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외상을 겪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자매 스스로 성폭력 사건으로 겪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다 편안하게 털어놓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어린 시절 피해 자매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자매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듣고 자신들의 의문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성장하면서 피해 자매의 성폭력 사건은 혼자 상상하며, 혼자 묻고 답해야하는 안개 속에 갇혀, 의문을 풀기 보단 답을 들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매들은 어른들로부터 자신이 품은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지 솔직하게 드러내어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박태영과 박소영(2007)의 성폭력 피해 여중생의 가족 치료 사례 분석에서 가족 치료자는 여중생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때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폭력 사실을 여중생의 언니에게도 알려서 가족 내에서 비밀을 만들지 말 것을 권유했더니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여중생은 언니의 응원에 힘입어 크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가족에게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형제, 자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데 집안에 도사리는 비밀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오히려 성폭력 사실을 알려내고 개방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가족 치료 과정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건강해 방향으로 가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위기 상황을 전환할 수 있다.

이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이해

를 돕기 위한 성폭력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의 존재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들이 겪는 경험의 본질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만든다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소외되어온 형제, 자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는 막막한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해 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의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그들의 총체적인 삶 안에서 들여다봄으로써 그들 경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 시점에 고정된 경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라는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변화하고 상호 작용하는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를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로 규명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있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를 개별적 주체로 보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를 피해생존자를 도와야하는 주변인의 위치에 한정시켜서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들 또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면에서 피해를 입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이다. 이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피해 경험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있어 그들을 개별적 주체로 보아야하고 이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자매들의 피해

는 명확하다. 성폭력 사건 피해 지원 시 그 범위를 당사자와 어머니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를 위기 상황의 내담자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 자매들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최고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 둔감, 감정의 억압, 신체 고통, 격렬한 스트레스, 죄책감 등 급성 혹은 만성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우울증을 앓았거나 거식증, 불면증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를 위기 상황의 내담자로 간주, 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들에게 필요한 치유 프로그램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의 이해를 돕기위한 성폭력 매뉴얼 개발의 내용이 기존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성폭력 매뉴얼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연민과 죄책감, 답답함, 부인 등 자매에게 이중적인 양가 감정을 가지며, 직접적 피해자인 생존 자매의 타자로서 그러나 자신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자기 존재의 이중성을 경험하는 특수성으로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치유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성폭력 피해 가족을 상담할 때 가족과 환경적 맥락의 상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구성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각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가족 구성원들의 각각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들이 따로 또 같이 유기적이며 입체적으로 구성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개방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치유 효과는 높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들의 ‘자조 집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의 도움을 받길 원하며 멘토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길 원한다. 연구 결과 자매들은 멘토가 있어 자신이 인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받았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 보고한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처지가 같은 자조 집단을 운영해 간다면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의 경험을 통해 논의와 의의를 도출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매의 경험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께 하고자 한다.

첫째, 눈덩이 표집과 의도적 표집에 의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점은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했지만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자매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접근과 논의를 유출해 냈더라도 이는 ‘여성’의 위치와 지위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확대 적용하기에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자 형제로서 여형제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또한 남자 형제가 피해자여서 이를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경험하는지 등, 보다 다양한 경우 수의 연구 참여자로 연구를 풍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제, 자매 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후속 연구를 시행한다면 가족 역동의 특성과 대처에 관해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적은 사례수와 근친 성폭력과 장애 여성 성폭력 경험의 연구 참여자로 국한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성폭력 사건에 확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타인에 의한 비장애인 성폭력, 아버지가 비가해자인 친족 성폭력, 부부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적극적 해결을 도모했던 성폭력,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극복한 경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면 또 다른 논의의 점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 경험의 전형성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초점화나 유형화를 통해 범주를 특징짓고 구분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주제별, 시간별로 연구 문제를 보다 초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아동기 성폭력 경험을 안고 성장한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경험의 회고는 경험의 재구성, 의미의 재구성, 기억의 유실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현재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시점의 연구를 한다면 또 다른 시사점과 경험 본질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변인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이

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둔 자매의 피해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한다면 형제, 자매들에게 또 다른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아, 임경희 (2006). 성폭력 피해 자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MMPI, BDI, STAI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419-436.
- 강민아, 김혜정, 이승재, 정운선, 정성훈 (2008).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적용 사례. 인지행동치료, 8(1), 15-29.
- 고재홍, 윤병해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고정에 (2011).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공감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8). 근친성학대 피해 자녀 어머니의 생존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연 (2002). 성폭력 심각성과 부정적 생활태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2010). 성폭력 피해자의 이차 희생 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아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림 (2010). 성인초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요인.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2011). 범죄에 대한 신념들이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미치는 영향: 일탈 청소년피해자와 일탈 성년 피해자간의 비교.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현 (2011).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현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터넷 음란물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10). 성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문양만다라 중심의 미술치료사례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해수 (2007).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권해수 (2008). 성폭력 피해청소년 치유프로그램 효과. 상담학연구, 9(2), 485-499.
- 권해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1229-0688.
- 나인형 (2006).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경험분석 및 지원체계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가람, 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 박태영, 박소영 (2007).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의 가족치료 사례 분석: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서. 한국치료학회지, 15(2), 343-363
- 배경희 (2007). 친족 성폭력의 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선 (2012). 성폭력 피해 자녀를 둔 부모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석 (2006). 성폭력 가해자의 자기통제감,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정복지연구, 6, 67-88.
- 서혜석 (2007). 집단 치료프로그램이 성폭력 가해자의 인생가치명료화 훈련변화에 미치는 영향. 인권복지연구, 1, 123-141.
- 손지현 (1998). 소아암 환자 형제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숙 (2010).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식, 이수경, 이수정 (2006).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지행동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교정학회소식, 31, 89-116.
- 양선화 (2008). 성폭력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 183-224.
- 원경희 (2008).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심리적 적응 모형 구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선 (2012). REBT 기법을 적용한 미술치료가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피해

- 자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
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 (2010). 성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를 중심
으로 한 미술치료의 현황분석과 프로그램 연
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송 (20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의 도입과 그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 (2012). 성폭력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밀감 중심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실 (2007). 소아암 환자 형제자매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용, 김정규 (2006).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
증에 관한 연구: 성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511-537.
- 이은진 (2009). 보호관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과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4(1), 109-131.
- 임영선 (200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프로그
램의 효과성: 인지행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 (2004).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
니의 고통스런 '말하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희 (2012). 성장기 폭력 경험과 성태도가 대
학생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
구: 분노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성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하 (201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
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전자감시
제도 경험자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혜숙, 김동일 (2007). 다시 생각해 본 성폭력
개입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소고. 열린교육
연구, 15(2), 111-125.
- 한인영, 김선민, 김진숙, 김진숙 (2008). 청소년
성폭력 경험자의 현상학적 연구 시선으로
부터 살아남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85-417.
- 황승흠, 황성기 (200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
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Beverly, B. L. (1995). Child sexual abuse; the
female victim's relationship with her
nonoffending mother *Child Abuse and Neglect*,
19(6), 729-738
- Broderick, C. B. (1993). *Understanding Family
Process: Basics of Family Systems Theor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Burge, S. K. (1983). Individual and family
reactions, C. R. Figley & H. I. McCubbin
(Eds.), *Stress and The family; coping with
Catastroph*, 103-119.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 Campbell, R. (2002). *Emotionally Involved; The
Impact of Researching Rape*. New York:
Routledge.
- Carol, A. P. (2006). Non-Abusivemothera of
sexually abused children; The role of
rumination in maternal outcome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5(2), 103-122
- Cheryl, R. (1990). Parental respon to extrafamilial
child sexual assault. *Child Abuse and Neglect*,
14, 113-120
- Dunn, J., & Kendrick, C.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 Giorgi, A., & Giorgi, B. (2003). "The descriptive

-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Bamberg, M., Camic, P. M., Rhodes, J. E., & Yardley, L.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Expanding Perspectives in Methodology and Design*. 243-27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신경림 외 역). 서울: 현문사.(원전은 1985년에 출판).
- Harper-Dorton, K. V. & Herbert, M. (1999). *Working With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hicago: Lyceum Books, Inc.
- Serge Tisseron. (2003). 가족의 비밀. [*Nos Secrets De Famille*.] (정재곤 역 2005) 서울: 궁리
- Scarr, S. & Grajek, S. (198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Siblings*, N. J: Erlbaum.
- Walters, L. H. (1982). Are families different from other grou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841-850.
- 1차원고접수 : 2013. 1. 16.
심사통과접수 : 2013. 3. 05.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ing As a Sister of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Jung, Ju-Eun

Cheon, Seong-Moon

Kyungsh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experiences of women whose sisters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three women whose sisters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researcher mainly used the In-Depth Interview for this study including E-mail and phone call interviews. The researcher also used notes on non-verb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her own personal thoughts and feelings. As a result of analysis on experiences of women whose sisters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researcher derived 10 constituents and 27 sub-constituents. The constituents are: <getting to know what has happened to her sister>, <feeling a chill to the marrow of her bones about the hopeless news>, <experiencing post-traumatic stress>, <changes of family dynamics>, <ambivalent feeling toward her sister>, <duplicity of her own existence>, <way of handling crisis and survival strategies>, <difficulty choosing survival strategies>, <growth strategies>. In conclusion, first, although sister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 not only psychological shock but also emotional conflict, pain, somatic symptoms, and changes of family dynamics, they try to help their sisters and grow positively from the experience. Second, sisters of sexual abuse victims feel ambivalent toward their sisters and feel confused toward themselves because they are not the one who were raped, but they are also the victims of the rape. However, they try to obtain the legitimacy of their own existence by admitting that they are also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ird, women whose sisters were sexually abused want to heal themselves and grow by knowing and expressing what they feel and getting professional help from others. Finally, the researcher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 systematic,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 women whose sisters were sexually abused.

Key words : violence sexuelle, sexual violence, experience of dam · age, duplicity of existence, A Phenomenological Study

부 록

면접 질문지

<사건에 대해>

1.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2. 언제 알았는지?
3.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4. 사건을 가족들끼리 얘기하는지?
5. 본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족에 대해>

1. 사건으로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었는가?
2.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 부모와 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어떠한가?

<자신에 대해>

1. 정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 행동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 학교에서는?
4. 친구관계에서는?
5. 집에서는?
6. 이성을 바라볼 때는?

<가치관에 대해>

1. 성에 대한 생각은? 변화가 있었는가?
2. 성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가?
3. 성폭력에 대한 생각은?

<기타>

1. 하고 싶은 말?
2. 바라는 점?
3. 가족이 무얼 알아주기 바라는가?